

연중 제22주일

제1독서 : 신명 4,1-2,6-8

제2독서 : 야고 1,17-18,21b-22,27

복음 : 마르 7,1-8,14-15,21-23

숲 정 이

“우리 아느님 아웨메서는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게서 주시는 분이시다.”
(신명 4,7a)

강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다

정승현 신부/복자 천주교회

하느님을 믿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나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가까이 계심을 압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하느님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게서 주시는 분이시다.
그처럼 가까이 게서 주시는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 또 있겠느냐?
그분의 법만큼 바른 규정과 법규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 또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명, 조상의 전통과 다릅니다.
흔히들 인간의 전통과 하느님의 법을 혼동하는데
하느님의 법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여 어둠 속에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였다라도
내 안에서 인내와 친절과 온유가 나올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했다라도
내 안에서 시기와 교만과 중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
사람을-너와 나를-더럽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리

여름을 보내며

처서(處暑)가 지나면서 날씨는 일순간 가을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여름, 생전 처음 당하는 무더위와 가뭄은 우리
들의 생활 리듬을 완전히 무디게 하고 말았다.

매일매일의 더위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고, 가뭄의
여파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무섭게 매질을 해댔
다.

급기야 농촌 들녘의 곳곳에선 짝짝 갈라져 버린 논두
렁에 나앉은 농민들의 한숨이 터져 나갈 듯 했고, 도시
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제한 급수로 겨우 기갈을 면하는
신세가 됐다.

계절은 절대 심상(尋常)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느
킨다.

생전 여름이 몰려날 것 같지 않은 마당에도 입추(立秋)
가 지나고, 그 가운데 삼복(三伏)이 넘어가더니 마침내
처서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열제(炎帝)의
행패도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지난 여름엔 일도 많았다.
비행기가 구르고 기차가 박치기하고, 아까운 인명이
숨지는 크고 작은 사고가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

우리들 모두도 그렇다.
여름 한철을 지내며 무덤다고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운 일이 한두 가지인가.

흐트러진 몸가짐하며, 생활 주변의 온갖 찌거기, 그
리고 정상 궤도를 잃어버린 생활 습관, 모든 것 하나하
나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됐다.

서늘한 바람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한다.
이 가을, 우리 모두 마음과 주변을 정리하고 산뜻한
생활로 돌아가자. **목**

숲정이 산책



가정의 해-모범가정을 찾아서④

손희장(베드로)씨의 가정

“지성이면 동천이다.”

지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 준다는 가훈이 첫눈에 보이는 집.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할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손희장 금암 사목회장(69)의 얼굴은 항상 밝고 훈훈하다.

말보다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는 손 회장의 모습 속에 모든 신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교직생활 42년 가운데 절반 가량을 교장 선생님이로 봉직했던 손 회장이 영세받은 것은 15년 전.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면서부터 그의 삶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린 13,7)’ 고 얘기했지만 그는 영세 이전의 삶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추앙의 대상이었음을 자타가 공인한다.

부인(김규순 일미나·67)보다 15년 늦게 영세를 받았지만 부인의 열성적인 신앙생활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할 의무가 있음’을 알았고 응답할 자신이 생겼을 때 영세를 받았다고 회고한다.

특히 손 회장은 큰아들 내외의 온갖 시련과 고난, 그리고 병마와의 투쟁까지도 하나님 사랑 속에 극복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자기 인생까지 걸고 복음의 메시지에 따라 사는 모습에서 신비로움을 체험했다고 덧 붙인다.

그도 그럴 것이 손 회장의 맏아들 내외인 손택규(비오) 김정숙 씨(테레사)의 봉사적 삶은 평신도 사도직의 표본이고 어두운 모습을 한번도 드러내지 않는 명랑한 얼굴은 신앙에서 오는 빛을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4남1녀 가운데 장남과 둘째 가족이 모두 성가정을 이루고 있고 셋째와 넷째 가족은 일부가 교인이다.

그러나 한번도 장요한 적은 없고 그들이 스스로 ‘가족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존재임’을 알고 ‘예수의 모습에로 나아가길’ 기도한다.

영세를 받은 이후 전주에 기거하는 동안에는 매일 치명자산을 방문, 현실에 휩쓸리기 쉬운 삶의 자세에 제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손 회장은 그의 활동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등 평신도의 바른 길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산다.

순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찬 직책이라며 사목회장직을 사양했던 그였지만 전임 사목회장(라홍덕 아타나시오)이 스스로 총무로 내려 앉으면서까지 삼고초



려 끝에 금암 신자들은 그분을 모셨다.

그만큼 그는 만인의 존경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가기 위한 사랑의 힘을 받았다.

“평신도는 서로간 권리와 의무의 준수를 원칙으로 하면서 자기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그의 사목회 운영방침이다.

가능한 매주 토요일이면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데 손자 손녀까지 합쳐 30여명이 된단다.

맏아들은 같이 살다가 얼마 전 분가했지만 어떤 아들이 됐던 장가가면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같이 살아야 한다.

그것은 가족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며 아울러 며느리들이 손님 구실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

가정기도를 할 때면 비신자일지라도 모든 의식에 따라주는 게 무엇보다 고맙다는 손 회장의 기도는 신앙선언 바로 그것이었다.

손 회장의 장남(삼례광고)내외는 삼천 성당, 둘째(순교·안천고)내외는 효자 성당에 나가고 있으며 셋째(경배·전북대시설과)내외와 넷째(일배·사업)내외는 교리 공부중에 있다.

사랑에는 겉표가 없다는 말처럼 늘 이웃을 향한 손 회장의 마음에서 온은한 사랑과 정을 느낀다. 그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편안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을 드리기 위한 그의 신앙고백이었음을 깨달으며 나는 신앙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기도와 삶을 조화시키며 살아가는 손 회장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나기를 빌어본다.

취재 : 문치상(비오)

하이패션
세미라인 전주점
이 현 점(가타리나)
풍년재과 중앙동 본점 ← 전주백화점
☎ (0652) 83-4235

이명복 박사의
시상·팔상 체질 감별
(이제 전주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 재 갑(다두)
정 원 미(클라우디아)
중앙동 성원오피스텔 508호
☎ (0652)231-6427~9
황명건강회

조립식 건축
한국건설
조립식건물, 일반공사
경량칸막이 콘테이너
김 해 선(레이지오)
☎ (0652) 75-0161
FAX (0652) 71-6301
휴대폰 011-659-8355

천호장 의사
장례용품 생산 및 장례의전 서비스
24시간 상담, 대기
한 규 학(안토니오)
☎ (0652) 253-0744
71-0404

잠깐

르완다 난민을 돕습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종족들간의 분쟁으로 50만 가량이 학살되었고, 반군으로 다시 권력을 장악한 반대 종족은 보복으로 또 다시 다른 종족을 학살하리라는 소문 때문에 수많은 르완다 사람들이 이웃 나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2백만명에 달하는 르완다 난민들은 먹을 양식은 물론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콜레라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만연하여 낮은 이국 땅 허술한 난민촌에서 하루에도 수천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전세계 구호사업을 총관하는 국제 까리따스는 이미 르완다 국내는 물론 이웃 나라 난민촌에서 이들의 구호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르완다 난민구호를 위해 미국돈으로 5만 달러를 이미 르완다 까리따스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늘어만 가는 난민들과 이들의 비참한 상황이 그치지 않자 유엔은 전세계에 르완다 난민을 위한 긴급구호를 요청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도 유엔의 국제적인 르완다 구호활동에 동참하면서 교형 자매 여러분의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에 다시 호소합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2백만 르완다 난민들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기아민을 도와 주십시오.

자신의 열매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2고린 9,6-15) 우리 모두 일주일에 헝기 식사비를 난민들 한 가족의 일주일 양식으로 도와 주십시오.

접수처: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복지회

문의처: (0652)85-5290

온라인: 국민은행 506-21-0650-743(오성기) 우체국 402206-0040459-12(오성기)

교구 소식

- 1. 축! 견진: 9월3일(토) 오후3시 황동 성당
9월4일(일) 오전10시30분 인후동 성당
 - 2. 교구장 사목방문: 9월1일(목) 사회복지, 무지개 가족
 - 3.故 오기순 신부 1주기 추도미사: 9월2일(금) 오전10시30분 중앙 성당
 - 4. 천호 피정 안내: 9월3일~4일 주재-선조들의 신심, 강사-김진소 신부 문의 73-6600
 - 5. 교구청 직원 및 본당 사무장(원) 피정(2차): 8월29일~31일 오후3시 천호 피정의 집
 - 6. 가톨릭 문우회: 9월3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 7. 전주교구 성서교실 개강: 9월2일(금) 오전10시, 오후8시, 전동 성당 교육관,
문의 사목국(85-0041) ※ 많은 참여 바랍니다.
 - 8. 이리지구 성서교실 개강: 8월31일(수)부터 오전10시 창인동 성당, 오후8시 신동 성당
 - 9. 휘폴라레 모임: 9월4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대상-국교에서 일반
 - 10. 성모기사회: 9월3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11. 푸른군대 피정: 9월1일(목) 오전10시 덕진 성당
 - 12. 레지오 마리에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제1차 임원연수: 9월3일~4일 오후4시
남원 효산콘도, 대상-교미시움 및 꾸리아 단장, 각 분과위원
- ※ 축! 영명: 4일(성모이세) 이상섭, 송영진 신부님

요심이 (1096) 김병오



용머리 바자회

<신축 기금 마련>

- 때: 9월9일~12일
- 장소: 용머리 성당

조촌동 성당

신축기금 마련 바자회

- 때: 94.9.9(금)~12(월)
- 장소: 성전 신축 부지 (동군산 전화국 옆)
☎ (0654) 42-7191

묵상기도 모임

묵상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

- 청년: 매월 1·3째(수) 오후 8시
- 주부: 매월 1·3째(수) 오후 2시
- 곳: 전주 서신동 성당
- 문의: (0652) 74-9262
전교 가르멜 수녀회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국비생 모집·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서울방사선과 의원
(종합건강진단센터)
종합검진, 유방촬영
특수촬영, 병리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3

원평 성당에서 직접 제배한

꿀 배

- 판매기간: 8월29일~10월9일
- 구입문의: (0658)43-0880~1
43-4236

할 티 생 수

- 김 일 수(요 셉)
- 소 화 숙(수산나)
-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52-559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연중 제 22주일

◎ 용머리 성당 성전건축을 위한 2차헌금 있음.

1. 장우회 임원 명단: 회장-박춘근(스테파노)
부회장-박종용(레미지오)
총무-장성복(바오로)
재무-임종태(분도)
2. 남전주지구 초등부 교사 윌레회: 30일 후 6시, 지하 교리실
3. 특별기도 및 성체강복: 1일 저녁미사 후
4. 병자 봉성체: 2일 오전중, 사무실에 신청
5. 사목회 상임: 2일 저녁미사 후
6. 반미사: 기린봉APT 2반-1일 후 3시
* 반미사를 원하시는 반회장님께서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7. 모임: ①반회장 모임(1일 전 10시30분)
②울뜨레아(4일 장엄미사 후)
8. 금주 청소: 중노 10, 11반
차주 청소: 중노 12, 13반
9. 고산성당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이 루갈다 고상판매: 빈첸시오. 벽고상-13,000원, 목고상-8,000원

□ 지난해 봉헌금: 995,400원 □ 교무금: 1,148,5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1. 연중 제22주일입니다.
2. 혼인강좌 안내: 오늘 오전 9시30분~오후 6시(매월 끝주일)
가톨릭센터에서 있습니다. 혼인하실 분들은 미리 혼인강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입원환자 및 환자가 개인 가정에서는 본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부님, 수녀님께서 방문하여 기도하십니다.
4. 미사시간과 회합시간에는 탁구를 금합니다.
5. 성체강복: 9월1일(목) 오후 미사 후
6. 대건회: 9월4일 공식미사 후
7. 사목회: 9월4일 저녁미사 후
8. 성당 청소: 9월3일(토) 증거자의 모후Pr, 천주의 성모Pr
9. 금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신태섭 부부
봉헌-박상기 가족
10. 차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유두석 부부
봉헌-박남수 가족

□ 지난해 봉헌금: 563,501원 □ 교무금: 1,290,400원
□ 감사헌금: 100,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1. 오늘은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일.
2.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3.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 요셉회-다음주일
③사목회-3일(토) 저녁미사 후
4. 성시간 및 성체강복: 1일(목) 저녁미사 후
5. 성가대 정기총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사무장 피점: 29일(월)~31일(수)까지, 천호 피점의집
7. 금주 청소: 바다의 별Pr
8. 차주 청소: 구세주의 모친Pr
9. 금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박귀철 ②주영래
봉헌-최용선 부부
8.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한동욱 ②이순자
봉헌-정만수 부부

※ 용어해설

교명: 세례명. 천주교 신자가 세례 때에 붙이는 이름. 자기가 특히 존경하는 성인성녀나 천사의 이름을 따. 과거에는 부모가 지어 주신 본래 이름은 속명이라 하고 세례명을 본명이라 하는 습속이 있었다.

대부 대모: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사람에게 장차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을 선정하게 하여 마치 정신적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관계를 맺어준다. 세례받는 사람은 그에게 대자 대녀가 된다.

□ 지난해 봉헌금: 349,85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환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

◎ 연중 제22주일! (9월은 순교자 성월)

1. 구역 반집회: 8월28일(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9월4일(다음주일) 오후 2시
3. 사목회: 9월6일(화) 저녁 9시
4. 자모회: 9월7일(수) 오전 10시30분
5. 울뜨레아: 9월8일(목) 저녁 8시
6. 성령 쇄신 묵상회: 기간-9월26일(월)~10월1일(토) 오후 8
장소-서학동 성당
회비-5천원
※ 신앙인으로 중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
니다.
7. 성전 보수 헌금 신입하심분(지남주): 김영석(베드로) 20만원
임복련 5만원, 이영애(미카엘라) 5만원, 강봉주(바오로) 5만원
감사헌금: 익명 5만원.
축! 혼인: 9월4일 오전 11시30분, 신랑: 강명국(베네딕도)
신부: 김은심

□ 지난해 봉헌금: 992,550원 □ 교무금: 1,216,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환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환

◎ 9월은 순교자의 달입니다. 전동성지를 더욱 아끼고 사랑합시다

1. 금주: ①L.M 야외행사(지리산 칠선계곡)
②교무금 납부주일
③혼인강좌(썬타, 전 9시30분)
2. 성체강복 및 조배: 9월1일(목) 오전 10시
3. 성성유치원 개학: 9월 1일
4. 성기정회: 9월 1일 오전 11시
5. 성모성심회: 9월 1일 오후 3시
6. 농산물 직매장 판매개시: 9월1일부터 요셉회에서
- 7.故 오기순(알베르트) 신부님 1주기 추도미사: 9월2일(금) 오후
10시30분, 중앙성당
8. 병자 봉성체: 9월 2일 오후 2시
9. 차주: ①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주일
②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재속 클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④요셉회(후 6시)
10.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해 봉헌금: 1,936,06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 오기순 신부님 1주기 추도미사: 2일 전 10시30분, 중앙 성당
1. 사목회 및 남성 L.M 단원의 모든 남성 단합대회: 오늘 12시 구
성덕다리, 회비: 오전원
 2. 성시간 성체강복: 9월1일 저녁 7시30분 "순교자의 정신"
 3. 예비신자 입교예식: 30일 저녁 7시30분 인도자와 함께
 4. 자선 헌금의 날: 31일(수) 전 11시 미사, 후 7시30분미사
 5. 복지관 노인대학 급식제공: 9월1일 부녀회 수고바랍니다.
 6. 초·중·고 주일학교 개학: 초등부 3일 후 2시30분, 중·고
부-4일 전 9시,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7. 동승회(8.14세례자) 성지순례: 4일(주일) 9시미사 후
치명자산→천호, 도시락 개인 지참, 회비-오천원
 8. 유아 세례: 3일 후 3시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랍니다.
 9. 가정 미사: 31일 후 3시 유희상 정실비어 가정 12-1
 10. 교무금 납부주일: 본당 살림을 위해 의무금을 납부합니다.
 11. 회의: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다음주일 후 2시30분
한빛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12. 다음주일 미사 안내자: 최병남(요한) 최현근(요한) 홍성춘(오로)
이정숙(마텔라) 전숙자(엘리사벳)

※ 신앙 방향 끝? :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합시다.

□ 지난해 봉헌금: 1,194,500원 □ 교무금: 1,839,000원